

『한민족어문학』 제76집 편집자의 말

제76집에 실린 논문은 총 12편으로, (한)국어교육 3편, 국어학 4편, 고전문학 4편, 현대문학 1편이다. 두 차례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문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 중 주제의 새로움과 방법의 실험성 면에서 높이 평가될 만한 논문이 적지 않았다. 학회에서 정한 게재율을 따르다 보니 이번 호에 이들 논문을 다 실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문 분야별 분포가 고르지 못한 것은 차차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게재논문은 박영식의 ‘융합적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의 활용’, 김억조의 ‘초·중등 국어 ‘문법’ 영역 성취기준의 용어 연구’, 허재영의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향 연구’로 모두 3편이 실렸다.

박영식의 ‘융합적 유연성과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논증적 글쓰기의 활용’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대학의 글쓰기 교육도 찬반양론형 논증과 문제해결형 논증을 활용한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도구적 글쓰기에서 창의적 글쓰기로 확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억조의 ‘초·중등 국어 ‘문법’ 영역 성취기준의 용어 연구’는 초·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을 통하여 ‘문법’ 영역의 흐름과 용어 사용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4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를 대상으로 삼았는데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문법’ 영역 성취기준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허재영의 ‘근대 중국의 서양서 번역·보급과 한국 근대 학문에 미친 영

향 연구’는 187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중국의 서양서 번역과 보급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표를 두고, 번역 서양서가 18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895년 학부 설립 당시 교과서로 번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격치회편』의 ‘역서사략’이나 익지서회, 광학회의 서양서 번역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한국 근대 지식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어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목정수의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여격 주어설 비판을 위하여’, 권미영의 ‘경상방언 관형형 ‘-있는’의 기원과 실현 양상 연구’, 허상희의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 서은아·김형주의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로 모두 4편이 실렸다.

목정수의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여격 주어설 비판을 위하여’는 ‘가형 성분’이 무조건 주어로 분석될 수 없고, 그 중에는 ‘가형 목적어’로서 목적어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기술동사와 주관동사를 중심으로 밝혔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기술되어 온 ‘를형 목적어’와 더불어 쪼개진 목적어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임을 새롭게 밝혀 세계 유형론 학계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미영의 ‘경상방언 관형형 ‘-있는’의 기원과 실현 양상 연구’는 ‘경상방언 관형형 ‘-있는’의 기원과 실현 양상 연구’는 경상방언의 특이 관형형인 ‘-있는’의 기원과 그 실현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있는(-잇는)’이 ‘-잇-’ 문법화 이후 타 방언에서는 거의 소멸하였지만, 경상방언 속에서는 여전히 ‘-은’과 공존하여 실현된다고 하며, ‘-잇는’이 ‘-은’과 교체되는 요인을 ‘화자의 관심사’에 따른 임의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허상희의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은 일반적으

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언어차가 있듯이, 통신상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므로 실제 카카오톡 자료를 통해 성별 차이에 따른 언어차를 형태, 어휘 및 기타, 통사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은아·김형주의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는 ‘재난 보도준칙(2014)’에 이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2015)’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재난보도 방송에 자극적 표현이 넘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전문학 분야의 게재논문은 김정화의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신도일록』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 신태수의 ‘『김진옥전』의 水中戰爭譚과 그 幻想美學’, 김종구의 ‘다산 정약용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記文과 紀行詩를 중심으로’, 박상영의 ‘<텐둥어미화전가>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一考’로 모두 4편이 실렸다.

김정화의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신도일록』 소재 시조를 중심으로’는 이세보 유배시조의 특질과 함의를 살피기 위해 그의 유배일기인 『신도일록』의 서술 방식과 목적을 피고, 『신도일록』에 수록된 시조를 중심으로 이세보 유배시조의 양상과 특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태수의 ‘『김진옥전』의 水中戰爭譚과 그 幻想美學’은 『김진옥전』 수중전쟁담은 환상성을 지니고 있어서 수중전쟁담의 수중계가 ‘욕망-성취’ 구도를 형성하고, 그런 구도 속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은 상호 욕망을 교합하며 삶의 진실을 드러내므로, 환상미학은 이 ‘욕망-성취’ 구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종구의 ‘다산 정약용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記文과 紀行詩를 중심으로’는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유람 및 기행에 나타난 풍류와 그 의미를 기문(記文)과 기행시(紀行詩)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

산의 학문완성은 풍류 중 긴수작(緊酬酢)에 해당한다. 한수작(閒酬酢)은 누정(樓亭)·대(臺)·서원(書院)·사찰(寺刹)·선유(船遊)·소요(逍遙)·사회(詩會)·유산(遊山)·연회(宴會) 등 다양한 형태의 유람 및 기행 문화를 형성하였다.

박상영의 ‘<텐동어미화전기>의 중층적 담론 특성에 관한 一考’는 본 연구는 <텐동어미화전기>의 중층적 담론 특성을 새롭게 밝혀본 글로, 여기에는 제명이 주는 무게에 비해 작품 내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작품은 크게 ‘서술자-화전관에 모인 이들 간의 관계 성장기(거시구조)’와 ‘개별 주체(텐동어미)의 인생 성장기(미시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구조는 각각 회귀 담론 형태를 띠는 가운데 상보적인 관계상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대문학 분야의 계재논문은 김경민의 ‘1970-80년대 민중의 글쓰기에 강요된 ‘부끄러움’의 정치학’으로 모두 1편이 실렸다. 이 논문은 사회적 구성물인 부끄러움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비정상 혹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지배집단의 권력과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 메커니즘으로, 1970-80년대 민중의 글쓰기에 나타난 부끄러움 역시 당시 권력화된 지배적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